

가수 아닌 '목사 조하문'

자전에세이 들고 팬 찾아

지난 2002년 목사 안수를 받고 돌연 가수에서 목회자로 변신했던 가수 조하문(47) 씨가 이번에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회고한 자전 에세이를 들고 다시 팬들을 찾았다.



“해야, ‘이 밤을 다시 한번’ 등으로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조목사는 97년부터 아세아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 4년 간 신학을 공부한 뒤 2002년 4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03년 캐나다로 이주, 지난 해부터 토론토비전교회 담임목사로 활동 중이다.

조목사는 이번에 펴낸 자전 에세이 ‘내 아침 아시는 당신께’ (홍성사)를 통해 가수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면은 심한 고독과 허무감에 허우적거려야 했던 ‘잘 나가던’ 젊은 시절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대마초 부작용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고 한 때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은 우연히 요한복음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확신이 들면서는 즉시 가수 생활과 사업을 접고 목회자 길을 걷기 시작했다.

조목사는 에세이를 쓴 이유에 대해 “하나님을 책으로 증거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100℃라면 음악에 대한 열정은 20℃정도로 음악을 내게 취미 이상은 아니다”라며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종교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감동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거나 공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종이접기’ 자원봉사 펼치는 광주 40세 주부대학생 허연심 씨

“소외된 아이들과 사랑을 만들어요”

“반으로 접은 종이 한 부분을 접고 싶은 만큼 접어보세요. 이 부분은 ‘지붕’이 돼요. 반대편도 접어서 대각선을 따라 ‘도리로~’ 올리면, 자~ 지붕 2개가 됐죠?”

10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로템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 허연심(40·송원대 사회복지학과 1년)씨가 아이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

‘놀이형 교육’은 지능 발달·정서 함양 효과

허씨는 지난 3일 발족한 광주시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일원이 되면서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올해 ‘불혹(不惑)’의 나이가 된 허씨가 대학생 자원봉사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 송원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며 ‘06 학번’이 됐기 때문이다. 허씨는 실제 체험한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늦깎이 대학생’의 이름을 달았다.

허씨는 특히 ‘종이접기’ ‘블록 쌓기’ 등 요즘 유행하고 있는 ‘놀이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종이 접기를 꾸준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창의력이 놀라게 발달하는 것을 지켜보며 ‘놀이형 교육’이 아이 지능 발달, 정서 함양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종이접기에 쓰이는 수십 장의 색종이가 시각의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집중력과 지구력, 창의력이 발달한다는 얘기였다.

“주는 행복이 받는 행복보다 더 커”

허씨는 서구문화센터에서 종이 접기를 배워 5년 전부터 강사로 활동해 왔다. 3년 전에는 구연 동화도 배우 수업의 감칠맛을 더하고 있다. 토끼를 접으면서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응용하고, 도깨비를 접을 때는 도깨비 흉내를 내는 식이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아이들이 강의가 끝날 때쯤 직접 만든 작품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허씨의 보람 중 하나다.



“시골 풍경을 만들어보자”는 허연심씨(맨 왼쪽)의 말에 로템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아이들이 시골 집 모양 종이접기를 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주는 행복이 받는 행복보다 더 커”

허씨는 현재 로템지역아동센터 외에도 베데스다 요양원에서 월 1회 구연동화 봉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꿈이다.

허씨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한 요즘이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주는 행복이 받는 행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내게 종이 접기를 배운 아이들이 또 다른 봉사를 실천해 물질로 얻을 수 없는 봉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프로야구 KIA 지명된在美 대학생 성민규

“꿈 이뤘다... 인생 역전 홈런 친 기분”

“9회말 투아웃에서 역전 홈런이라든가 기분입니다. 고교 시절 야구를 못했다는 말이 한이 맺혔는데 미국에서 돌아와 한국 프로야구의 명문 구단 KIA 타이거즈에서 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16일 열린 2007 프로야구 신인 선수 2차 드래프트에서 KIA에 지명돼 눈길을 모았던 미네브라스카대 재학생 성민규(24)의 각오는 남다르다.

한 때 야구를 포기하고 2년 간 외도를 한 뒤 그라운드에서 다시 뛰고 뉴질랜드와 미국을 돌아 해외 아마야구 출신 3호(드래프트 1호)로 꿈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는 뉴질랜드 유니버시티대학에서 취미로 야구를 하다 뉴질랜드 대표팀에 발탁돼 호주에서 열린 영연방대회

에 출전해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웨슬리안대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여 2004년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고 그 해 7월 네브라스카대에 장학생 자격으로 편입했다.

그는 올 해 타율 0.303과 도루 20개, 출루율 0.402로 좋은 성적을 냈고 미국을 찾아온 KIA 스카우트팀의 테스트를 통과한 뒤 결국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1번으로 지명됐다.

성민규는 “야구를 못한 한(恨) 때문에 네브라스카대 시절 손이 찢어질 정도로 타격 연습을 했던 적도 많다.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밀워키 브루어스, 한국 두산, 삼성의 문을 두드렸지만 실패했다. 타격을 지도해



준 김중모 코치 등 2년간 나를 지켜봐 준 KIA에 보탬이 되고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델해도 되겠다” 여자 프로농구선수 6명 화보 공개



국내 여자프로농구 선수 가운데 ‘모델급’ 외모를 가진 선수 6명이 드레스를 입고 촬영한 화보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25일 창간하는 여자농구 전문 월간지 ‘바스켓 퀸’은 17일 이들 6명의 화려한 변신을 미리 소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영숙(187cm·신한은행), 김경자(185cm·금호생명), 변연하(182cm·삼성생명), 박은진(178cm·신세계), 김은혜(182cm·우리은행), 조은주(180cm·금호생명)

‘괴물’ 흥행배우 배두나 사진작가 데뷔

‘괴물’로 1천만 흥행 배우 대열에 올라선 배두나가 18일부터는 ‘사진작가’라는 타이틀도 얻게 돼 겹경사를 맞았다.

배두나가 직접 찍고 쓴 포토에세이 ‘두나’s 런던 놀이’가 18일 출간된다. 이에 맞춰 배두나는 25일과 27일 서울 대형서점에서 팬 사인회를 연다.

사인회는 25일 교보문고 평화문점, 27일 영풍문고 종로점과 서울문고(반디엔투스) 종로점 등 총 3회 열릴 예정이다. 옐로우 미디어에서 발간하는 ‘두나’s 런던놀이’는 256의 분량으로 기존 한류 스타들의 포토 에세이집과 달리, 배두나가 모델로서가 아닌 사진작가로서 직접 찍은 사진으로 꾸며졌다.

2년 전부터 사진에 빠져든 배두나는 이 포토 에세이를 통해 여행에 대한 단상과 여행 다니며 겪었던 경험, 개인적 이야기 등을 풀어놓았다.



연예인 축구단 ‘프렌즈’ 영광서 봉사활동

연예인 축구단 ‘프렌즈’(단장 안정훈)가 17일 영광군을 찾아 갖별 청소년 등 봉사활동에 나섰다.

탈린트 안정훈과 김보성을 비롯, 20여명의 연예인들은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갯벌에서 페그볼과 스티로폼 등 갖벌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이어 오후에는 영광군 모범운동장 축구회 회원들과 갖벌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갖고 지역 주민들과 우의를 다졌다.

해마다 전국을 돌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연예인 축구단은 이날 두우리 갯벌에서 바다 청소와 주민들과 친교 행사를 가진 뒤 18일 오전에는 염산

사람의 집을 방문,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연예인 축구단 배도환 명예단장은 “서해안 갯벌 살리기 일환으로 영광을 찾게 됐다”며 “축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친목을 다지고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매년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귀네스 팰트로 육아휴가 끝... 활동재개

딸 애플과 아들 모세 낳아 2년여 간 활동을 쉬었던 여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올 가을 스크린에 돌아온다.

팰트로가 출연하는 첫 영화는 10월11일 개봉 예정인 ‘가위 들고 뛰기(Running with Scissors)’. 아우구스티노 버로의 베스트셀러 회고록을 각색한 영화로 팰트로가 모세를 임신하기 전 촬영했던 영화다. 관객이 팰트로를 스크린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해 가을 ‘증거(Proof)’ 이후 1년 만이다.

팰트로의 또 ‘파괴사 바자’ 9월호에서 출산 및 육아 휴가를 끝내고 영화활동을 재개하는 계획을 밝혔다.

팰트로는 “이제는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며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슬프거나 우울한 영화는 하고 싶지 않다. 웃기고 밝은 인물을 연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대근, 자신 이름 딴 영화로 컴백



젊은 시절 남성미의 상징이었던 이대근(65)이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 ‘이대근, 이 태근’(감독 심광진, 제작 윤연준)의 주연을 맡아 한창 촬영 중이다.

‘해적, 디스코왕 되다’ 이후 4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 이대근이 자신의 이름을 건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 1979년 ‘대근이가 왔소’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쌓은 적이 있다.

1970~80년대 강한 남자의 상징이었던 이대근은 이제 늙고 힘없어진 아버지를 연기한다. 어느덧 60대의 노인이 된 이대근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젊음을 희생했던 아버지, 그러나 결국 혼자 남은 외로운 아버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김용환(광주시 환경녹지국장) 씨 장남 호현군 최양동씨 장녀 선혜양=18일(금) 오후 7시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구곡서씨 장남 태석군 박행웅(변호사·전 광주지방법원장)씨 장녀 혜진양=19일(토) 오후 5시 서울 힐튼호텔(남산) 그랜드볼룸.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12시, 수·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외)
▲광주대 평생교육원 자연법치지리풍수학 무료 시민 공개 강의=19일(토), 26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대 중앙도서관 5층, 강묘법, 음·양택, 수택, 유산록 등 소개. 011-609-8117
▲장익호 지리풍수학회 무료 공개 강좌=19일(토) 장흥군 사회복지관, 26일(토) 호남대 상촌캠퍼스 오후 2시부터 6시, 풍수지리 천년의 허와실 영상 강의 등.011-608-4088

모임

▲무등클럽 월례회=21일(월) 오후 7시 해동홀, 515-3345

동창·동문회

▲순창 금과초 제 41회 동창회(회장 김형우) 모임=19일(토) 오후 5시 강천사 약수산장, 011-680-6075
▲광주상고 12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19일(토) 낮 12시 담양 추월산 태웅산장, 018-643-9200

모집

▲제 14기 광주시민예술대학 수강생 모집=8월30일부터 9월25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12시 강의, 국악·무용·문학·미술·연극·연예·음악·건강·민속·교양

등으로 누구나 가능. 원서 교부는 30일까지, 전화 접수 가능. 528-9207
▲금호교육문화회관 제 22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어학·교양·음악·컴퓨터·서화·국악 등 39개 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는 25일까지, 문의 360-6631~6.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동운철학원 역사철학 수강생 모집=매주 3회 6개월 과정. 명리학·풍수지리학·성명학. 376-9396
▲한마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홀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회화장식 국비교육생 모집=만 40세이상, 매월 11만원 수당 지급. 문의 (재)연세직업전문학교 264-

4300-4305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 특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우리거래하나되기 광주전남노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못자리유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농촌공사 합평지사 농지임

대 신청자 모집=도시 거주자 및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임대 수탁 관리 http://www.fbo.or.kr061-320-5222
▲한국복지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랑·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부음

▲김병석씨 별세 재준·재건·재

환·재춘·재순·재화씨 부친상 장하·유인식씨 빙부상=발인 18일(금)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
▲정옥희씨 별세 조호현·광현·봉현·난순·난남·난희·난숙씨 모친상 한상길·문해순·신경호·전옥희씨 빙모상=발인 18일(금)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유재창씨 별세 성현·희현·수현·정현·인숙·미숙씨 부친상 김춘호·노홍기씨 빙부상=발인 19일(토)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
▲박남숙씨 별세 고재욱·재룡·재성씨 모친상 김병성씨 빙모상=발인 19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515-4488

<p>넓고 평안한</p> <p>무등장례식장</p> <p>■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p> <p>대표: (062) 515-4488</p>	<p>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p> <p>기적같은특별분양</p> <p>☎ (062) 521-1100</p>
---	--